

[ 경제 ]

# “정부 계획 홍수 시장경제 왜곡”

##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각종 규제로 공기업 시장 점유... 민간 참여 봉쇄

정부 차원의 계획이 지나치게 일상화 돼 있고 그 종류도 너무 많아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큰 정부’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성봉 선임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정부계획과 시장경제의 왜곡’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한시적인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법률에 규정된 정부계획은 일상화·주기화돼 있고 그 수립 및 집행방식이 전권일률적으로 정형화돼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올해 1월 현재 257개 법률에 규정된 537개의 정부계획이 존재한다.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의 계획이 91개로 가장 많고 이어 환경부(79개), 농림부(55개), 산업자원부(50개), 해양수산부(40개) 등 순이다.

이처럼 만연한 정부계획은 ‘작은 정부’로 가는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쉽게 축소되거나 개선되기 어렵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같은 정부계획들은 ▲수립과정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시장점유를 사실상 담보하는 선점효과 ▲소비자간, 사업자간, 지역간 교차보조로 인한 시장 메커니즘의 작동 차단 ▲공공기관과 공기업 활동의 진작과 이들의 참여를 통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 등 형태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많은 정부계획이 법에 의해 규정

됨으로써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를 운영 하는 정부부처는 손쉽게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관련 정부산하기관들도 법에 규정된 계획기능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돼 결과적으로 법에 명시된 정부계획은 ‘큰 정부’로 나아가는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전력수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계획은 공기업이 담당하는 대용량 발전설비의 선점효과로 인해 단기간 수급조절이 용이한 민간

의 가스발전소 건설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전력설비의 수급조절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다른 사례인 주택수급계획 역시 국토의 이용 및 건설과 관련된 각종 정부의 규제와 택지공영개발에서 민간업체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수도권 택지의 비싸게, 지방은 싸게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교차보조를 수행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주택의 수급조절이나 공급능력 확충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정부계획은 암묵적 규제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일관성있게 구조화하는 틀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법률에 나타나는 규제만 심사할 것이 아니라 정부계획과 같이 규제계획을 우회하는 장치로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20살 넘은 車 모여라”

### 삼성교통박물관, ‘올드카 페스티벌’

삼성교통박물관은 다음달 15일 경기도 용인의 박물관 내 에니카 공원에서 ‘2006 올드카 페스티벌’을 열기로 하고 참가 자동차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오래된 자동차를 사랑하고 아끼는 애호가들의 소장차를 모아 전시하고 일반 시민들이 훌륭한 자동차의 가치와 보존상태, 차에 얽힌 사연 등을 평가하는 축제다.

참가자와 관람객의 인기투표를 통해 차량관리 및 원형보존이 가장 잘된 ‘올해의 올드카’와 ‘주행거리가 가장 긴 자동차’, ‘가장 오랫동안 소유한 자동차’ 등 20여부류에서 다양한 상을 수여한다.

대회 참가 자격은 1986년 이전에 생산돼 차량(車齡: 차의 나이)이 20년 이상인 자동차로 국산·외산을 가리지 않고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면 된다.

박물관은 이달 29일까지 선착순 100대를 모집하며 참가자에게는 자동차 관리용품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연합뉴스

## “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이 부담해야”

### 고충처리위 권고 결정 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은행연신거래기분약관 등 표준약관을 고객에게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고객들은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거나, 근저당 설정비 대신 약정금리 이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고충위의 권고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연신거래기분약관 규정을 고쳐 부동산 담보권 설정·행사·보전 및 담보목적물 조사·추심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동산담보해지비용 및 채무이행지체에 따른 비용만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지세는 채무자와 은행이 50%씩 분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인 대출고객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고충위의 한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총액이 190조1천87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권고안대로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일반 국민은 1조3천342억원의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대출까지 포함하면 3조원 가량의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 철강업계 ‘중국산 짝퉁’ 골머리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제품으로 위조된 ‘짝퉁’이 등장해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업체들은 철강재의 검사증명서를 위조할 수 없도록 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철강제품의 검사증명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가동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의 위·변조 방지 시스템은 철강재의 재질과 화학성분, 규격, 중량 등의 내용이 표기된 검사증명서에 현대제철 로고가 새겨진 편집방지용 ‘워터마크(Water Mark)’와 2차원 바코드, 복사방지 마크 등을 새겨 넣어 증명서를 위조할 수 없도록 한 것. 이는 최근 저가의 중국산 철강이나 H형강, 열연강관 등이 대량 수입되면서 유통과정에서 검사증명서를 위조, 중국산 철강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대제철은 이같은 위조 제품으로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건설공사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진로 ‘참이슬 프레쉬’ 전국 판매



(주)진로는 소주시장의 저도화 추세에 맞춰 알코올 도수 19.8도의 신제품 ‘참이슬 프레쉬(fresh)’를 서울·경기지역에 이어 지방에서도 판매한다.

‘참이슬 프레쉬’는 2만4천400명의 소비자 평가를 거쳐 개발됐으며, 지리산과 남해안의 청정지역에서 자란 3년생 대나무를 심어 1000도에서 구워 만든 숯으로 정제해 빛은 천연 알칼리 소주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한편 진로는 ‘참이슬 프레쉬’의 출시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인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가족, 1♡광주 콘서트’

19일 영주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열린 삼성 디지털프라자와 함께 하는 ‘1♡가족, 1♡광주 콘서트’에 몰린 2천여명의 청중들이 콘서트의 분위기에 푹 빠져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휴대전화 요금인하’ 요구 외면하는 이통사

# 마케팅 ‘평평’ 투자는 ‘짚뚱’

### 정통부, 국회 제출 자료

국내 이통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 및 유지에 마케팅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원가 검증 위해 파악한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이통 3사가 기업설명회 등을 위해 자체 산정한 마케팅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신규 설비투자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이통사의 논리는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통 3사는 2004년 이후 마케팅비로 매년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나 설비투자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일 정통부가 한나라당 김희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케팅비로 8조6천668억원을 쏟아부었다.

반면 같은 기간 WCDMA(광대역코드 분할다중접속)망 등의 설비투자에는 6조7천24억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연도별 마케팅비를 보면 2004년 3조3천848억원, 2005년 3조2천865억원, 2006년 상반기 1조9천955억원에 달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3조원 이상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설비투자 규모는 2004년 3조42억원, 2005년 2조5천107억원, 2006년 상반기 1조1천975억원으로 감소 추세다.

통신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분리기준을 통해 자체 검증한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이통 3사가 자체적으로 IR 등을 위해 산정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신위가 검증한 이통 3사의 마케팅비(광고선전비 포함)는 2004년 4조9천644억원, 2005년 4조9천960억원으로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마케팅비의 1.5배 정도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2004년 2조9천237억원, 2005년 2조8천739억원을 기록했다. KTF와 LG텔레콤의 경우 2004년에는 각각 1조2천470억원, 7천937억원이었으며 2005년에는 1조2천471억원, 8천750억원이었다.

통신위가 산정한 마케팅비에는 판매 영업 가능 비용, 고객서비스 가능 비용, 기업이미지 광고 가능 비용 등은 물론 광고선전비, 대리점 지급 수수료 및 판매활동 관련 간접비용 등이 포함된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잡플러스	금호타이어 여 피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1	062-515-2700
㈜유로텍	제조기술자 (광주지점근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972-8270
엘포시스(주)	기술 개발부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2	062-970-3512
남영건설(주)	일반사무/문서수발/OA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24	011-626-1123
이한캐스트	정규직 웹디자이너 모집	고졸/경력1년	1200~1400	09/25	062-511-6810
서암기계공업(주)	사무관리 신입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5	062-951-0081
이회인디스	품질관리기술자 모집	고졸/경력3년	2000~2200	09/25	062-951-9341
㈜웅진씽크빅	[광주]시내 초등학교 컴퓨터 강사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6	062-515-0195
한국금속	판매직 매니저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27	062-222-3477
한국금융기술네트웍	에스원 SECOM 업무지원 요원(오토바이운행)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9/27	053-941-8959
아시아나HDT(주)	아시아나HDT 인턴사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8	02-2127-8375
에스티에스커뮤니케이션	[광주]삼성생명 콜센터 상담전문인력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600-0802
세계식품광주지점	기초 거래처 관리, 영업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9/30	062-526-5283
영창중공업(주)	회계분야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61-362-38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화원관광단지 탄력

### 기반조성 공사 70% 공정률 파인비치 골프장 내일 착공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일대에 조성될 화원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오는 22일 골프장 민자시설 기공식을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0일 한국관광공사와 보성건설에 따르면 화원관광단지 기반조성 공사가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파인비치 골프리조트(Pine Beach Golf Resort)’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

특히 파인비치는 총 사업비 690억원을 들여 모든 코스를 바닷물과 인접한 ‘씨사이드(Sea-Side)’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앞세운 화원관광단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파인비치는 미국 글로벌 골프디자인사의 거리 로저 베어드씨가 기본설계를 맡는 등 세계적인 명장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4만6천여평의 부지에 회원제 18홀과 퍼블릭 9홀 등 모두 27홀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15만 흙은 바닷물과의 거리

가 불과 10m 안팎으로 시원한 바닷바람과 파도소리를 들으며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또 15, 16번 코스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드물게 바다를 직접 가로지르는 샷이 이뤄지도록 디자인됐다.

보성레저개발(주) 이영훈 본부장은 “전남 서남지역인 해남에 명문 골프리조트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원관광단지는 지난 1993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매입과 일부 진입도로 개설 등에 그치는 등 난항을 거듭했으나 이날 골프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단지내에는 파인비치 골프장 외에도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천후 기능성 해수욕장과 300척 수용규모의 마리나 시설, 남도 플라워 파크, 워터파크를 포함한 씨월드 등이 오는 2011년 완공된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화원관광단지 ‘파인비치’ 조감도.

## 국민연금 개혁안 내주 처리 가능성

### 내년부터 노인 60%에 월 7만~10만원 지급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을 다음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여당 복지위원회 10명이 발의키로 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한나라당이 그동안 줄곧 요구하던 기초연금제를 수용한 형태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점 해소의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을 미루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함께 각계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이상을 끌어온 연금 개혁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당정은 전체 노인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89만명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과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월 10만

원, 그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 재정 안정책의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급여수준은 오는 2008년부터 현재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기로 하는 등 한나라당의 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2008년 이전의 가입기간에는 급여율 60%, 2008년 이후의 가입기간에는 급여율 50%가 각각 적용되며, 현재 수급자는 2008년 이후에도 현재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연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당초 안에서 후퇴한 재정 안정책이나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재원 문제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